

## 생활한복 현황 및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여주대학 가정학과 조교수

안 현 숙\*

### 목 차

- I. 서론
- II. 생활한복의 형성과정
- III. 전통복식의 미적특성
- IV. 생활한복 현황 및 디자인 조형성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전통복식인 한복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2천년을 이어오면서 어느 나라의 민속복보다 깊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복식에 관한 관심은 점차 감소하고, 특히 젊은 층에게는 매우 생소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80년대 이후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하여 이제 우리 전통적인 것은 진부하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 경제성장에 따른 문화적 자신감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 증대되고 1986년 아시아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신감이 고조되면서 우리 전통복식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학생운동과 문화운동을 통한 민족과 민속문화의 재인식이 복식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1990년대 경제불황과 IMF체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민족주의, 애국심, 복고주의 등의 사회현상을 겪게 되고, 실용주의는 한복에 있어서 기능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변화는 1990년대로 이어져 생활한복의 출현을 낳게 되었다. 문화관광부는 1996년 3월, 21세기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우리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상물선정 작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문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CI(Cultural Identity)상징물로써 가장 지지를 받은 것이 전통복식이었다. 이와 더불어 '전통복식

1) 김범수, 소비자 광장, 한국일보, 12월12일, 1996.

2) 이득수, 생활 속에 옛 멋을 살리자, 일간스포츠, 1월3일, 1997.

3) 이인자, 이태옥, "한복 생활화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21호, p. 177, 1993.

입는 날' 제정을 통해 우리 옷 입기 캠페인을 벌여 의식향상을 시도하고 있으며<sup>1)</sup>, 일부 기업체와 학교에서는 유니폼으로 생활한복을 지정하기도 하였다.<sup>2)</sup> 정부의 '한복 입는 날'의 제정 등의 지원 정책 및 업체의 증가와 다양한 마케팅활동(고궁이나 민속 경기 입장 시 한복을 착용하면 무료관람)은 생활한복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국내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학위 논문의 주제로 생활한복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의 범위도 다양화되어 성인 남, 녀의 생활한복 뿐 아니라 아동복에서 중, 고등학교 교복에 이르고 있으며, 판매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판매와 매장의 인테리어에 이르는 폭 넓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패턴이나 단순한 형태의 변형을 시도한 논문들이 대부분이고, 심미적인 측면에서의 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지니는 고급화 차별화 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근원적으로 전통복식을 우리문화 유산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현대여성들은 전통미를 유지하면서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기존 한복의 수정이 이루어지길 바랐으며<sup>3)</sup>, 여성의 경우 문양이 있는 것을 다수가 선호하는 결과에 맞추어 전통문양의 현대화를 통한 다양한 문양개발과 문양형태, 형태에 따른 삽입방식, 배치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통적 이미지를 살리는데 적극 활용한다면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생활한복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리라 본다. 일반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생활한복의 개발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전통한복에 근거하여 현대인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개발해 낸 형태의 의복을 '생활한복' 이라고 정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 첫째, 현대 생활한복 디자인의 형성과정 및 상징성에 관하여 알아본다.
  - 둘째, 현대 생활한복의 형태, 소재, 색채의 특징 등을 통하여 생활한복 디자인의 조형성을 살펴본다.
  - 셋째, 미래 생활한복 디자인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 연구범위는 인터넷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업체 중 10개 이상의 유통망(직영점, 대리점, 백화점, 할인점, 취급점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3개 업체(질경이, 여럿이 함께, 돌실나이)의 제품을 대상으로 2001-2002년 춘추복 제품을 통하여 생활한복 디자인의 조형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성인 여자 생활한복 중 일상복으로 그 연구범위를 제한한다.

## Ⅱ. 생활한복의 형성과정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복식사 연구는 전통복식의 양식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고 개화기이후 복식 변천의 고찰은 그 전통양식의 현대적 의미와 복식 발전의 방향을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 1. 조선시대까지의 복식변천(BC37-1876)

우리 민족 고유의 복식은 저고리, 바지, 치마를 기본 구조로 하여 의례적인 외적인 포의를 덧입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고려 17대 인종(1123~1146)까지 큰 변동이 없다가 충렬왕(1275) 이후 우리 고유의 저고리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허리 부위로 짧아진 저고리 길이와 띠 대신 고름이 생기는 변천이 있었다. 이러한 변천에는 외적인 외래복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적 요인인 한반도의 풍토 조건과도 관련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복식 변천에 있어서는 여자 옷에서 많은 세부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저고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기에 저고리 길이가 길던 것이 연대가 내려올수록 짧아졌고 화장의 길이는 손목을 덮었다. 소매는 통수로 배래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고 넓은 끝동은 수구 쪽을 향해 좁아지면서 곡선으로 변하고 있다. 반달깃과 넓은 목판깃이 좁아지면서 칼깃, 반목판깃, 당코깃, 동그래깃으로 되었으며 겹설편 안설편 모두 넓었으나 차차 안설편이 좁아졌다. 겹마기와 고름만은 예외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sup>4)</sup>

### 2. 개화기의 복식변천(1876-1945)

개화기는 역사상 커다란 정치변화와 많은 사회변동이 일어나면서 전통복이 간소화되고 양복으로 변하게 되는 과도기적 시기로 복식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에는 신분에 따른 복식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서양문물 도입사상과 사회개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여자복식의 변천은 서서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변화되었으며 한복의 개량과 양장의 착용을 들 수 있다.<sup>5)</sup>

여성들의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좀 더 간편한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장옷이나 쓰개치마 같은 것이 사라져 가면서 차츰 얼굴을 노출하게 되었고 저고리의 길이는 길어졌으나 치마에 있어서 길이는 오히려 짧아져 짧은 통치마가 등장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여학교 학생들이나 전도부인을 중심으로 한복 개량이 있었다. 즉 어깨허리가 만들어졌고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는 대신 치마는 짧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복식문제 이전에 독립운동과 구국사업 후원에 저력을 기울여 나라를 되찾자는 애국심의 발로에 연유한 것이었다.<sup>6)</sup>

1920년대 들어서 일본은 겉으로는 문화정책을 표방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민족의식을 자각하게 하는 고유의 미풍양속을 말살시키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한복 착용보다는 양장 착용을 적극 권장하였다.<sup>7)</sup>

1930년대 일제의 본격적인 식민지 정책 강화로 자발적인 한복 개량은 없었으며 양복 착용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이후 저고리에 고름대신 단추를 달거나 브로치를 이용하기도 했는데<sup>8)</sup> 이것은 전세계의 전시체제로 인한 옷감 부족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일제에 의한 강압적인 절약운동, 생활개선운동이었다.

4) 안명숙, 김은정, 양숙향,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방향", 복식, 39호, p. 92, 1998.

5)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p. 443, 1993.

6) 김민지외4인, "한국복식 변천과 사회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2호, p. 317, 1993.

7)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p. 163, 1991.

8) 김경희, 조효순, "한국 개화기 여성복식의 변천요인", 복식, 32호, p. 159, 1997.

### 3. 해방후의 복식변천(1945-1990)

광복이 된 직후에는 일제로부터 받았던 복식제도 통제에 대한 반발로 한복을 더 많이 입었다. 그러나 한국전쟁(6·25)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구호품 의복으로 양복이 대중화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양복이 일상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일제 식민시대에 한국인에 대한 지적 창조의 부재와 민족문화의 주체성 말살정책은 해방 후 무비판적인 외래 문화의 수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1950년대의 한복 형태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통복이 명절이나 행사 때 입는 예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활동복으로는 양복이나 개량된 한복을 착용하고, 반면 한복의 단점을 개량하고 장점은 살려 명절이나 모임 등에 착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었다.<sup>9)</sup>

9) 홍나영, "한복개량 운동에 관한 고찰", 한국복식학회지, 15호, p. 145, 1990.

1960년대에는 양복에 밀려 평상복으로서의 자리를 빼앗긴 전통복을 다시 실생활에 맞도록 개량해서 입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량한복은 크게 일반화 되지 못했고 한복은 점점 더 일상복에서는 밀려난 채 외출용 또는 예복으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1970년대 한복은 장식적 경향이 많아 화려함이 계속되었다. 장식의 재료, 방법, 부위, 양상에 있어서 장식의 과잉현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금박, 기계자수, 채염, 무늬 붙이기, 치마폭에 그림 그리기 등이다. 1980년대는 전통복에 대한 재인식으로 품질과 디자인의 고급화가 이루어졌다. 중반에 들어서면서 중간색의 단출하면서도 고아한 한복을 즐겨 선택하고 저고리, 치마색의 대비와 반회장, 삼회장이 전통복으로 복고하는 경향을 보이며 형태에 있어서도 옛 한복의 뿌리 찾기가 두드러져 거의 장식을 넣지 않은 조촐한 한복이 새롭게 자리 잡았다.<sup>10)</sup>

10) 안명숙, 김은정, 양숙향,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방향", 복식, 39호, p. 93, 1998.

### 4. 1990년대 이후의 복식변화(1990-현재)

1990년대는 생활한복의 활성화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이 개발되어 일반인들의 우리 옷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예복으로 착용하는 전통복은 소재나 색상 면에서 고급화되었고 개성 표현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전통요소의 회귀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전통성을 띠는 옷이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민족의식에 기초를 둔 생활한복이 활성화되어 대중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생활한복은 전통복의 우아한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활동하기에 편하고 손질이 쉽도록 깃, 소매, 고름 등에 부분적인 변화를 주었고, 디자인은 과감한 변화를 준 반면에 색상은 오히려 옛스러움을 표현해 주는 중간 색조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997년에는 문화유산의 해, 한복 입기 추진의 해 등을 지정하면서 우리 옷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 Ⅲ. 전통복식의 미적 특성

전통한복은 오랜 기간 동안 세부적인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민족의 기호와 정서에 맞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한복의 조형미에 있어서 직선과 곡선의 공존은 곧 근엄과 자애의 공존을 의미한다.<sup>11)</sup>

특히, 복식의 윤곽선, 저고리의 도련선, 소매의 배래선, 깃머리선, 바지부리선 등은

11) 조오순, 한국의 생활화 방안연구, 창원:중등학교 가정과 일반 교원연수교재, 1997.

자연미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 특유의 선이다. 치마와 남자 바지가 만드는 실루엣은 풍성한 형태로 포용심을 상징하고 넉넉한 여유를 느끼게 하며 눈물고름, 속고름, 겹고름 등의 넓은 장식공간은 여백의미를 보여준다. 특히 버선, 아얌, 천의, 장신구 등은 거의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물이나 장신구 등의 문양은 크게 자연문과 기하학문으로 나눌 수가 있으나 일상복에는 주로 민 문양의 직물이 사용되어 여백의미를 나타내었다. 문양은 주로 한국인의 믿음이나 염원과 연관을 가졌고, 그 표현방법으로는 천연 염색, 조각잇기, 손누비, 상침, 자수 등이 있다.

전통 한국복식의 색채적 특징은 주조적인 백색과 강조색으로 나타나는 원색의 조화로 나타난다. 주조색인 백색은 인공을 배제한 사연과의 친화와 화합을 바라는 소박한 마음의 상징이다. 주로 일상복에 백색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원색은 의례적인 행사나 특수복에 애용되었다. 특히 색동은 길상의 상징으로 원색조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색상의 대비는 맑고 밝은 색상들과 맑고 짙은 색상들의 심한 명도 차이에 의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색채조화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복의 조형에서 나타난 미적 특성은 자연스러움과 넉넉함을 중시했던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의 산물이다. 이러한 미적 특성을 미적 가치, 조형적 특성, 색채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미적 가치

우리의 전통복식은 생활환경에 의해 서양복과의 구성상, 정서상 차이를 두고 있다.

첫째, 전통복은 구성방식에 있어 항상 체형보다 여유를 두어 구성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보이며, 바지의 허리둘레나 밑위길이는 여유분이 많아 약간의 체형이나 연령차이에도 상관없이 입을 수 있다. 치마의 평면성은 또한 착용자의 체형조건에 그다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양복과 달리 동일성이 깃들여져 있다. 의복의 결속양식도 그 여유와 여분을 위해 그 같은 형태를 갖게 된 것인데 이는 체형에 따라 자유자재로 땄수 있게 되어 있다. 트임의 경우에도 활동에 필요한 여유분을 트임으로 처리함으로써 몸의 움직임을 한층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복은 육체에 가장 구속력을 적게 주는 옷으로서 허리, 발, 팔, 목 등의 굴절부분과 옷과의 마찰을 가장 극소화한 인체본위의 구조로 되어 있다.<sup>12)</sup>

또한 좌식 생활의 환경으로 인해 인체에 최대의 자유로움을 주도록 여유 있게 재단되는 전통복의 특성은 인체의 굴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면재단에서 그 미적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착용방식에 나타나는 전통복의 특성은 한국적 문화개념의 싸는(包)문화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싸다는 것은 한국문화의 특수성과 동일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의식주 전반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식(食)문화에 있어 보쌈, 찜밥, 보쌈김치, 구절판 등과 같이 여러 가지를 함께 싸서 먹는 식습관이 존재하며, 이렇게 표현되는 싸는 문화가 의생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치

12) 조효순, 한국인의 옷, 밀알, pp. 24-25, 1995.

마인데, 치마의 감침새, 곧 하체에 감돌리는 그 매무새에서 우리나라는 은근한 미가 바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며 동시에 정신적인 의상이었다. 개체로서의 독립과 개인으로의 이탈에 가치를 두고 원시적인 서양인의 가치관이 그들 치마에 나타나 있는데 반하여 일체로의 포용과 사람으로의 접합에 가치를 두는 구심적인 한국인의 가치관이 우리 치마에 나타났<sup>13)</sup>고 사료된다.

13)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 조선일보사, pp. 249-251, 1994.

서양복식에서는 복식에 인체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려 한데 반해 우리의 전통복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합일로 보아 복식에서 자연과의 융화를 중시하여 복식에서 인체를 직접적으로 강조하여 나타내려 하지 않는데 서양복과 우리 전통 복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2. 조형적 특성

전통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형태미, 균형미, 비례미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미에 있어서 저고리의 경우 곧은 안깃과 겹깃이 사선으로 V자형을 이루며 앞으로 내려와 곡선으로 모아짐으로서 단정한 아름다움이 있고, 고름은 몸체의 움직임이나 외부의 영향에 따라 생동감 있는 울동미를 보여 준다. 치마는 착장법에 따라 다양한 곡선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치마의 부피감은 한층 강화되어 향아리형(melon silhouette)의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상은 바지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바지는 행전이나 대님을 착용함으로써 풍성한 폭이 움직일 때마다 변화되어, 생명력 있는 선의 울동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둘째, 균형미에 있어 구조적으로 대칭이지만 저고리의 썸, 고름 등과 같은 옷의 각 부분과 착장법에 있어서는 비대칭 균형이 많다. 특히 남자복 보다 여자의 저고리 상하·좌우의 비대칭 요소가 두드러지는 데 이러한 비대칭 균형은 미적 균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대칭균형에 비해 보다 세련되고 변화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상하·좌우의 비대칭은 저고리의 깃, 고름, 동정, 썸, 끝동, 겹마기 등에 다양한 선이나 배색효과로서 그 무게감을 더해 주어 단순한 치마와 균형을 이룬다.<sup>14)</sup>

14) 김인향, "전통복식조형미의 현대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6-98, 1996.

셋째, 비례미에 있어 저고리의 길이가 치마에 비해 적은 비율을 지니는 것은 인체와의복간의 상호 연관적인 비례관계를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미적 구성과 단순, 소박한 복식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저고리의 각 세부형태 등에서 황금비례에 가까운 비례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비례미가 비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체형을 보완시키는 착시효과를 지님으로 항상 이상적인 조화와 통일을 추구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sup>15)</sup>

15) 고정민, 채금석,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조사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p. 656, 1999.

### 3. 색채적 특성

전통복식에 사용된 우리 나라의 색들은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된다. 무채색은 흰색과 회색, 흑색이며, 유채색은 음양오행사상의 적, 청, 황을 위시한 여러 색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백의민족'이라 불릴 만큼 백의를 좋아하였는데<sup>16)</sup>, 이러한 백의는 삼국시대부터 문헌을 통하여 그 착용을 알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착용했던 백저포의 사용<sup>17)</sup>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실제의 백의 착용이 사회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에 의한 엄격한 상례시행에 따

16) 백영자, 한국복식, 한국방송통신대학, p. 345, 1987.

17) 국역 고려도경, 고전국역총서 119, 민족문화추진위원회, pp. 69-123, 1977.

18) 조우현,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0-13, 1989.  
 19) 장인우, "조선중기 일상복에 관한 색상연구(1)", 복식, 41호, p. 51, 1998.

20) 조영숙, "한국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35-36, 1988.

21) 星湖僿說, 卷2, 萬物問採色

른 대가족제도로 인하여 상복인 백의착용을 일상화하게 되었다.<sup>18)</sup>

이러한 백(白)은 단군신화에서부터 비롯되어 태백에서 나온 것으로 태양과 같은 밝음을 의미하며, 특히 우리 나라 산 이름에 '백'자를 사용하는 것<sup>19)</sup> 역시 태양을 신으로 하는 제천의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백의숭상의 이유로는 첫째, 풍토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에 가장 영합하는 색의 기호라 볼 수 있다. 둘째, 의복 재료면에서 자연 그대로의 이용이라는 편의주의의 측면에서 자연색에 연유하였던 것으로 본다. 이는 모시, 삼베, 목면의 가공되지 않은 소재(素色)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우선 시간적, 육체적 및 경제적으로 절약되고 편리하였기 때문<sup>20)</sup>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무채색 중심의 사용은 주로 일상복이나 서민복에서 애용되었고, 격식을 차린 복식이나 상류계층의 복식에서는 유채색을 사용하여 색채의 이분적 경향이 나타났다. 유채색의 정착은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에 입각해 청, 백, 황, 적, 흑의 오방색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물을 상징하는 흑색, 금속을 상징하는 백색, 불을 상징하는 적색, 나무를 상징하는 청색, 흙을 상징하는 황색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적 정서를 의생활에 반영한 것이다. 이 색상들은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기후와 염료를 생산하는 풍토에 따라 색채의 농담이 형성되어 우리 민족의 기호를 살렸는데, 특히 백의와 적절히 조화되어 사용된 색의 예를 들면 남자의 심의의 선 장식과 여자 원삼 안감의 선 장식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자의 의복인 심의의 경우는 양(陽)을 상징하는 백색바탕에 음(陰)인 흑색의 선장식을 볼 수 있으며, 여자의 의복인 원삼의 안감에서는 음을 상징하는 홍색 바탕에 양인 남색의 선 장식을 볼 수 있다.

오방색을 정색이라 하며 두 정색을 혼합한 색인 벽(碧), 녹(綠), 류(驪), 자(紫), 홍(紅) 등을 간색(間色)으로 구분<sup>21)</sup>하는데 특히 간색을 정색과 함께 사용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전통색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노랑도 셋노랑이 아닌 송회색이며, 홍색도 연하게 변화된 분홍이고, 청색도 옥색이 주로 쓰였다. 이는 은근한 담조미(淡調美)를 즐겨 찾던 우리 민족의 색채적 특징인 것이다.

전통복의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보색의 배색으로 된 색동을 들 수 있다. 특히 원삼이나 어린이 의복에 있어서 색동소매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부분이었는데, 어린이 의복 중 까치 두루마기나 오방장 두루마기 등에서 흑색을 제외한 정색과 간색이 혼합된 색동의 조화는 길상의 의미로 전통복의 색 사용은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우리민족고유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할 수 있다.

#### 4. 한국전통문양의 종류 및 특성

문양은 정신활동의 열매이자 인간의 창조성과 상상력의 과실이다. 문양은 시대의 정서와 문화적인 특징이 녹아있다. 아울러 지역성도 스며있다. 우리의 전통문양이 다른 나라의 문양과 구별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조형미를 담고 있는 한국전통문양을 생활한복디자인의 장식 문양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활한복디자인에서 기능성과 더불어 추구되어야 하는 심미성을 부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1) 한국전통문양의 시대적 변천과정

최초의 한국전통문양은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번개나 삼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무늬와 동물의 문양이었다. 특히 암각화에 등장하는 동물문양은 의사전달을 위한 기호이거나 수렵 어로로 생활과 제사 의식을 나타내는 장식무늬가 많아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 문양들은 집단의 약속을 표시하기 위한 상징적인 부호로 점차 패턴화되었고 여기에 표현욕구가 더해져 장식화되고, 더 나아가 예술 창작의 기원이 되었다.

구석기 시대의 기하학적인 문양은 신석기로 넘어오면서 빗살 무늬 토기의 문양으로 발전한다. 삼국시대에는 인동문, 연화문, 당초문 등 문양의 기법과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우리 민족의 생활 곳곳에 파고들기 시작한다. 금관이나 허리띠 같은 장신구에도 문양이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불교를 바탕으로 유교를 지향하던 고려시대에는 회화적인 문양이 발달하였다. 고려자기에 새겨진 수양버들, 갈대, 물새 등은 오늘날에도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문양으로 꼽히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와 도교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생활도구나 건축물, 의복 등에 유, 불, 선의 복합적인 상징물이 등장한 시기이다. 조선초기에는 회화적 장식무늬가 성행하여 수목화를 위주로 한 운치 있는 문인화풍의 무늬가 등장했다. 중기에는 더 나아가 산수, 인물뿐 아니라 꽃과 새, 매화, 대나무, 포도 등의 소재가 문양으로 성행하였고, 후기에 들어 서면서는 산수 무늬를 중심으로 당시의 자연관과 인생관을 반영한 해학적인 생활문양이 나타난다.

조선후기부터는 문양에 쓰이는 소재의 폭도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 거북이나 학 같은 십장생무늬가 의복을 비롯한 건축, 가구에 새겨졌고, 태극과 달과 해와 문자 같은 상징적인 문양도 등장했다. 우리의 문양은 이처럼 생활관념과 주술적, 신앙적 요소를 아우르고 발전하거나 변화해 왔다.

표 1. 한국전통문양의 시대별 변천과정

시대	대표적 문양
구석기시대	기하학적문양, 동물문양
신석기시대	빗살무늬
삼국시대	인동문, 인화문, 당초문 등 식물문양
고려시대	수양버들, 갈대, 물새 등 회화적문양
조선시대	유, 불, 선의 복합적인 상징물 등장
	초기 회화적 장식문양, 수목화를 위주로 한 문인화풍문양
	중기 산수, 인물, 꽃, 새, 매화, 대나무, 포도문양등
	후기 산수문양, 해학적인 생활문양.



## 2) 한국전통문양의 종류 및 특성

우리민족이 즐겨 사용한 문양의 살펴보면 크게 기하학적인 기하문과 자연을 상징하는 자연상징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상징문은 식물문과 동물문, 자연문 등으로 나누어지며, 기타 동자문이나 여러 가지 문양을 복합해서 만들어진 복합문 등이 있다.

표 2. 한국전통문양의 종류

분류		종류
기하문	기하문	운문, 아자문, 만자문 등
	길상어문	수, 복, 길, 부귀, 다남 등
자연상징문	식물문	목단문, 매화문, 난초문, 국화문 등
	동물문	사신문, 사령문, 원앙문, 호접문 등
	자연문	운문, 월문 등
기타문		동자문, 보물문, 복합문 등

## (1) 기하문

추상적인 문양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 문화 곳곳에 스며들었다. 가구 장식에 주로 사용된 팔괘문은 천지만물의 현상과 형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부호이다. 또 만(卍)자 문양과 수복(壽福)자 문양, 쌍희(喜)자 문양 등도 자주 쓰였다. 많은 기쁨이 항상 연속되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복은 장수와 행복의 뜻을 담고 있으며, 쌍희는 천지음양 화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2) 식물문양

우리 민족은 꽃잎의 소담스러움과 아름다움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며 아름답게 그려 넣거나 조각하고 수를 놓았다. 생활 문양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연꽃은 강한 생명력과 순결 그리고 번영의 상징으로 많이 쓰였고, 연꽃을 변화시켜 만든 보상화는 신비롭고 진귀함의 상징으로 쓰였다. 덩굴 문양인 인동초와 당초는 불교적 문양으로, 소나무는 탈속과 풍류, 장수, 유교적 절의와 지조의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매화, 난초, 국화는 각각 순결과 절개, 좋은 친구의 의미로 많이 새겼다. 대나무, 소나무, 매화와 복숭아, 석류 등도 많이 쓰였다.

## (3) 동물문양

풍수지리에서도 곧잘 등장하는 사신(四神),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는 동서남북을 가리킨다. 사신과 다르지만 역시 영험한 동물 넷, 즉 용, 봉황, 거북, 기린을 가리켜 사령이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신령한 힘을 가진 존재들로, 우리 민족은 주변 곳곳에 이들을 새기며 삶에 용기와 자신감을 심었다. 용은 사슴, 뱀, 소, 매, 호랑이, 잉어 등 실재하는 동물과 상상 속 신비한 능력을 모두 모아 만들어낸 동물이다. 모든 동물의 우두머리로 왕의 권위와 수호의 상징 문양으로 쓰였다. 봉황은 용과 학이 사랑에 빠져 탄생시킨 상상 속의 새이다. '봉'은 수컷, '황'은 암컷을 이르는 말이다. 고고하고

품위 있는 자태를 지니고 있어 주로 왕비에 비유되는 상징물로 사용되었고,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상서로운 새로 여겨져 궁중 문양에 많이 사용되었다. 거북 또한 상서로운 동물이다. 문방구, 인장, 가구 등에 많이 쓰여졌다. 기린 역시 거북과 마찬가지로 상서로운 동물로 받아들여졌다. 수컷을 '기'라 하고 암컷을 '린'이라 부른다. 훌륭한 임금이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기린 문양을 즐겨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동물들이 길조를 상징하며 우리 문양에 등장하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동물의 상징 호랑이를 비롯하여, 온순하여 우애의 상징으로 새겨졌던 사슴, 관직 등용의 상징물이었던 원숭이 등 많은 것들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코끼리가 길상(吉祥)의 상징으로 쓰였던 점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 당시 우리 나라에 코끼리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창덕궁 회정당 동쪽 굴뚝에는 분명 그가 새겨져 있다. 그밖에도 달을 상징하는 두꺼비와 토끼, 인간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상징물 해태, 귀신을 막아주는 고양이, 행복의 상징 박쥐 등이 다양한 곳에 많은 뜻을 새기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은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은 나는 동물들을 신령시 하고 귀하게 여겨왔다. 새 문양은 건축물에서 궁중복과 베갯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은 지상에 존재하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비롭게 여겨진 영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정통 회화에는 물론 패턴 문양으로도 우리 문화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궁중 대신들의 관복에 흉배로 사용되었다. 닭은 희망찬 출발이나 상서로운 기운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공작은 권세의 상징으로 기물이나 건축물 등에 사용되었고, 시인 묵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백로는 과거 급제의 뜻으로, 쌍을 이루어 표현되었던 원앙은 부부의 좋은 인연을 의미하여 금침에 많이 쓰였다. 기러기는 백년해로와 행복의 뜻으로, 오리는 행복과 생산의 상징물로 여성용품이나 공예품에 주로 쓰여졌고, 색이 아름답고 화려한 꿩 문양은 궁중 복식에 활용되었다.

물고기나 잉어는 관직 등용과 출세 그리고 부의 상징물로 쓰였다. 곤충류도 예외는 아니어서, 나비는 자유 연애와 행복의 상징물로 주로 자물쇠나 문고리에 많이 쓰였고, 매미 문양은 고결의 상징물로 노리개 장식으로도 많이 쓰였다.<sup>22)</sup>

22) 문양에 담긴 조상들의 꿈과 조형미, Morning Calm, 4, pp. 83-89, 2002.

#### IV. 생활한복 현황 및 디자인 조형성

#####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2001년 10월-2002년 1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국내 생활한복 브랜드 중 지명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10개 이상의 매장을 내고 있는 돌실나이, 여럿이 함께, 질경이의 3개 사업체를 선정하였고, 매장에 따라 공급물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2001~2002년 추동복 제품의 카탈로그를 입수하여 3개 사업체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66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제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매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저고리와 치마의 66종의 제품을 색채, 소재, 문양, 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결과 및 논의

1) 생활한복 생산업체 현황

1980년대 전후로 활성화된 생활한복시장은 2002년 현재 2백여 중소 생활한복 제작 업체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997년은 600억 규모, 1998년은 2천억 규모, 2002년은 1조원규모시장으로 예상된다.<sup>23)</sup>

23) 섬유저널, 5월호, p.274, 1999.

서울소재 생활한복 제작업체의 상권을 살펴보면 재래시장과 대학로 성균관대 일대, 종로 인사동 일대에 많이 소재하고 있으며 매장의 형태는 단독매장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가 전체의 70%정도로 과반수 이상이고, 매장 면적도 20평 미만의 소형매장이 대부분이며, 월 평균 매출액도 500만원이하의 경우가 40%정도이다.<sup>24)</sup>

24) 이상은, 조효순, "생활한복 제작업체의 현황", p.37, 1998.

판매되고 있는 가격대는 상, 하의 한 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이며 치수체계는 통일되어있지 않아서 'SS, S, M, L, XL, XXL' 로 표시되어 있거나 '55, 66, 77, 88, 99' 또는 '소, 중, 대, 특대, 별대'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생활한복의 색채

생활한복에 사용된 색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생활한복의 색채(N=66)

색채		계절	춘추복	동복	합계
색채	고명도색	저고리	9	16	25
		치마	4	0	4
	중명도색	저고리	17	5	22
		치마	19	29	48
	저명도색	저고리	4	15	19
		치마	7	7	14
합계	저고리	30	36	66	
	치마	30	36	66	

생활한복에 사용된 색채는 주로 춘추복에는 저고리와 치마 모두 중명도색이 많았으며 동복에는 저고리는 고명도색이나 저명도색이 많았으며 치마는 중명도색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치마는 중명도색이 많았다.

25) 조오순, 전정희, "여성 생활한복을 위한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학회지, p. 17, 2001.

배색은 상하동색보다 상하이색이 더 우세하였다. 조오순, 전정희의 선행연구<sup>25)</sup>의 배색선호도에서 상하동색보다 상하이색이 많이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26) 고정민, 채금석,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p. 41, 1999.

고정민, 채금석의 선행연구<sup>26)</sup>에서 여자는 1.푸른색계열, 2.붉은색계열, 3.초록색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여 모든 연령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상을 선호하였다. 배색경향은 남자는 짙은색 저고리에 옅은색 바지를 여자는 옅은색 저고리에 짙은색 치마를 선호하였다. 생활한복디자인 개발시 현대인의 의식에 맞추어 적

절한 색상선택과 배색이 적용되어야 하며 염색상태 역시 실용성만을 고려하여 미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전통적 이미지를 살리면서 현대감각을 지닌 염법의 적절한 적용이 요구된다.

3) 생활한복의 소재

생활한복에 사용된 소재는 춘추복과 동복 모두 면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상하 동일 소재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면이나 기타 재질의 심미성이 좋지 않아서 관리의 기능성만 강조한 느낌이었다. 다양한 소재로 제품의 기능성과 더불어 심미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정민, 채금석의 선행연구에서도 20대, 30대, 50대 여성의 경우 소재 느낌은 부드러운 것을 원했으며 시판되고 있는 실용성에만 초점을 맞춘 바랜 듯한 염색상태의 두꺼운 면직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앞으로 전통 소재의 현대화 연구와 서양복 소재와의 혼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재와 그에 따른 재질 역시 기능성과 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현대감각을 살려 다양하게 시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생활한복의 소재 (N=66)

소재	계절		춘추복	동복	합계
	저고리	치마			
면	저고리		20	33	53
	치마				
면+레이온	저고리		7	1	8
	치마				
기타	저고리		3	2	5
	치마				
합계	저고리		30	36	66
	치마				

4) 생활한복의 문양

표 5. 생활한복의 문양 (N=66)

문양	통계치		빈도
	저고리	치마	
유	식물문양	저고리	11
		치마	11
	기타	저고리	6
		치마	4
무	저고리	49	
	치마	51	

27) 김진아, 여자 한복의 문양과 배색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문양의 경우, 주로 문양이 없는 제품이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식물문양으로 나타났다. 남·여 모두 문양이 있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김진아의 연구결과<sup>27)</sup>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문양(62.0%)에 관심이 많았으며, 즐기는 문양의 형태는 식물문(57.4%)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

따라서, 민무늬는 단조롭고 멋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식물문을 응용한 창의적인 문양을 개발하여 현대인의 개성과 취미를 한껏 살리면 한복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생활한복의 형태

표 6. 생활한복의 형태적 특성 (N=66)

형태별요소	디자인요소	빈도
깃모양	동그래깃	32
	당코깃	9
	목판깃	6
	맞깃	8
	기타(변형형)	11
옷고름	고름	0
	단추	66

저고리의 깃은 대부분 동그래깃이었고 당코깃, 맞깃, 목판깃 형태도 다소 보였으며, 서양복식에서 볼 수 있는 변형형의 깃의 형태도 다소 나타났다. 유색 동정에 고름대신 매듭단추가 많이 나타났으며, 치마에는 주로 트임이 없는 통치마 형태였다. 치마의 경우 길이에 있어서 발목과 무릎중간 정도인 길이 즉, 전통치마 길이(총기장)보다 약 20cm정도 짧은 정도를 가장 선호하여 보행 시 편하도록 대체 할 수 있는 길이로 생각되며, 치마끈보다는 단추나 지퍼로 대체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양복의 세부장식을 접합시켜 활동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생활한복 저고리에 있어 20대 48%가 전통한복 저고리길이(밑가슴둘레선)보다 20cm 긴 길이(허리선정도)를 선호하였고 대부분이 전통한복에 비하여 10cm정도 긴 길이를 원했으므로 전통한복의 짧은 길이는 팔 동작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전체적인 활동을 부자연스럽게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저고리폼은 약간의 여유가 남는 정도를 선호했으며, 세부장식인 동정, 고름의 필요성에 대해 주로 불필요하며 대체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므로 디자인에 따라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통한복에 근거하여 현대인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개발해 낸 형태의 의복을 '생활한복' 이라고 정의하고 국내 생활한복 브랜드 중 지명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10개 이상의 매장을 내고 있는 돌실나이, 여럿이 함께, 질경이의 3개 업체를 선정하여 2001-2002년 춘추복 제품을 통하여 생활한복 디자인의 현황 및 디자인 조형성을 살펴보았다. 성인 여자 생활한복 중 일상복으로 그 연구범위를 제한하고 연구목적을 위해 이론적 고찰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전통한복의 미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인 측면은 여유를 두어 짓는 구성방식과 평면재단, 싸는 듯한 형식의 착용방식에서 그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조형적 특성으로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형태미, 균형미, 비례미를 들 수 있다.

셋째, 색채에 있어서는 백색을 포함한 무채색이 주를 이루었고, 또한 음양사상과 오행설이 깃 들어져 있는 유채색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적 정서를 담은 색채사용이 이루어졌다.

생활한복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한복에 사용된 색채는 주로 춘추복에는 저고리와 치마 모두 증명도색이 많았으며, 동복에는 저고리는 고명도색이나 저명도색이 많았으며 치마는 증명도색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치마는 증명도색이 많았다. 배색은 상하동색보다 상하이색이 더 우세하였다.

둘째, 생활한복에 사용된 소재는 춘추복과 동복 모두 면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상하 동일 소재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면이나 기타 재질의 심미성이 좋지 않아서 관리의 기능성만 강조한 느낌이었다. 다양한 소재로 제품의 기능성과 더불어 심미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문양의 경우, 주로 문양이 없는 제품이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식물문양으로 나타났다. 남·여 모두 문양이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는 문양이 없는 경우 단조롭고 멋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식물문을 응용한 창의적인 문양을 개발하여 현대인의 개성과 취미를 한껏 살리면 한복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형태 면에서는 저고리의 깃은 대부분 동그래깃이었고 당코깃, 맞깃, 목판깃 형태도 다소 보였으며, 서양복식에서 볼 수 있는 변형형의 깃의 형태도 다소 나타났다. 유색 동정에 고름대신 매듭단추가 많이 나타났으며, 치마에는 주로 트임이 없는 통치마 형태였다. 치마의 경우 길이에 있어서 발목과 무릎중간 정도인 길이 즉, 전통치마 길이 보다 약 20cm정도 짧은 정도를 가장 선호하여 보행 시 편하도록 대체 할 수 있는 길이로 생각되며, 치마끈보다는 단추나 지퍼로 대체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양복의 세부장식을 접합시켜 활동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생활한복 저고리에 있어 전통한복에 비하여 긴(가슴밑선정도)길이를 원했으므로 전통한복의 짧은 길이는 팔 동작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전체적인

활동을 부자연스럽게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저고리 품은 약간의 여유가 남는 정도를 선호했으며, 세부장식인 동정, 고름의 필요성에 대해 주로 불필요하며 대체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므로 디자인에 따라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생활한복 디자인의 방향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한복의 디자인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령별, 가격별, 용도별로 세분화된 제품의 생산과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한복 소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염색의 개발과 활용방안이 실용화 되어야 하며 천연섬유 느낌의 소재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생활한복과 어울리는 다양한 패션소품과 액세서리제품의 생산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제품치수체계의 표준화를 통하여 생활한복의 기성복 구입시 소비자들에게 편리성 및 일관성을 부여해야 한다.

다섯째, 생활한복 관련업체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통문화개발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여섯째, 인터넷 쇼핑이나 TV 홈쇼핑, 의류 협찬 등 정보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범수, 소비자 광장, 한국일보, 12월12일. 1996.
- (2) 이득수, 생활 속에 옛 멋을 살리자, 일간스포츠, 1월3일. 1997.
- (3) 이인자, 이태옥, “한복 생활화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21호, p. 177, 1993.
- (4) 안명숙, 김은정, 양숙향,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방향”, 복식, 39호, p. 92, 1998.
- (5)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p. 443, 1993.
- (6) 김민지외4인, “한국복식 변천과 사회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권, 2호, p. 317, 1993.
- (7)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p. 163, 1991.
- (8) 김경희, 조효순, “한국 개화기 여성복식의 변천요인”, 복식, 32호, p. 159, 1997.
- (9) 홍나영, “한복개량 운동에 관한 고찰”, 한국복식학회지, 15호, p. 145, 1990.
- (10) 안명숙, 김은정, 양숙향,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방향”, 복식, 39호, p. 93, 1998.
- (11) 조오순, 한복의 생활화방안연구, 창원:중등학교 가정과 일반 교원연수교재, 1997.
- (12) 조효순, 한국인의 옷, 밀알, pp. 24-25, 1995.
- (13)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 조선일보사, pp. 249-251, 1994.
- (14) 김인향, “전통복식조형미의 현대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6-98, 1996.
- (15) 고정민, 채금석,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조사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p. 656, 1999.
- (16) 백영자, 한국복식, 한국방송통신대학, p. 345, 1987.
- (17) 국역 고려도경, 고전국역총서 119, 민족문화추진위원회, pp. 69-123, 1977.
- (18) 조우현,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0-13, 1989.
- (19) 장인우, “조선중기 일상복에 관한 색상연구(I)”, 복식, 41호, p. 51, 1998.
- (20) 조영숙, “한국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35-36, 1988.
- (21) 星湖僊說, 卷2, 萬物間採色
- (22) 문양에 담긴 조상들의 꿈과 조형미, Morning Calm , 4, pp. 83-89, 2002.
- (23) 섬유저널, 5월호, p.274, 1999.
- (24) 이상은, 조효순, “생활한복 제작업체의 현황”, p.37, 1998.



- (25) 조오순, 전정희, “여성 생활한복을 위한 디자인 개발”, 한국의류학회지, p. 17, 2001.
- (26) 고정민, 채금석,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p. 41, 1999.
- (27) 김진아, 여자 한복의 문양과 배색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Abstract

#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plasticity of Practical Korean Costume

\* Dept. of Home  
Economics,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Hyun-Sook, Ahn\*

This research surveys the forming process of Practical Korean Costume and its social factors and examines Hanbok reformation. The international mode of '86 Seoul Asian Games and '88 Seoul Olympic Games in the 1980's called for the modernization of Hanbok. It is necessary for us to inherit modernized Hanbok which is endowed with the traditional beau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Practical Korean Costume design for focused on functionality as well as on keeping the traditional beauty

This study consist of theoretical study and positive study. Theoretical study has the esthetic characteristics(structure characteristic, formative characteristic and the characteristic of color). Grounded upon survey on brands, I have suggested designs that maintain Hanbok's superiority and functionality to fit modern life. Most of Practical Korean Costume shops could not fractionalize customer. So it need to subdivide and specialize customer and investment to improvement of design. Practical Korean Costume will have to be made to maintain dignity by using high quality materials and a coordinate goods will have to be developed.

· **Key Words** : Practical Korean Costume(생활한복), purchasing brand group(구매상표군), specialize customer(소비자 분화), modernized Hanbok(한복의 현대화), improvement of design(디자인 개발)